

섬유, 중국시장 점유율 “곤두박질”

2000년 20.3%에서 2009년 12.8%로 ... 중국 직접투자도 대폭 감소

국내 섬유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2000년대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산업환경 변화와 우리 섬유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국내리 섬유산업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2000년 20.3%에서 2009년 12.8%로 떨어져 일본과 타이완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990년대까지만 해도 타이완, 일본, 홍콩,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이 중국 섬유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했지만 2000년대 들어 홍콩을 제외한 3개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물려 국내 섬유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21.6%를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면서 2009년에는 19.6%로 내려갔다.

국내 섬유산업 분야 중국 직접투자 역시 2005년 2억7800만달러에서 2009년 6100만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은 국내 섬유산업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수입 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라며 “중국시장에서 글로벌기업의 진출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산 섬유의 품질 향상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추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부가가치화 및 차별화를 통해 현재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23>